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라틴아메리카의 니니족(族)¹⁾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이번 주(2106년 1월 2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2016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0.3% 축소될 것이라는 새로운 예측을 내놓으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훨씬 더 우려할만한 소식은 따로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래가 어두운 젊은이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금주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보고서 『라틴아메리카의 니니족』에 따르면 직업이 없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이른바 니니족의²⁾ 숫자가 최근 10년간 약 2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니니족의 증가는 머지않아 더 큰 불평등과 가난,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5살에서 24살 사이의 라틴아메리카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2000년대 전반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니니족의 숫자는 약 2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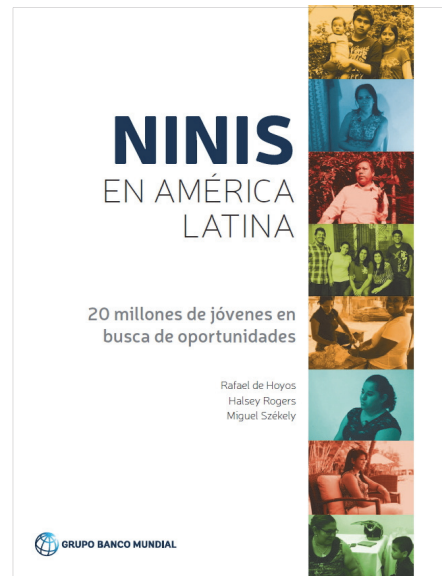
▶ 니니족의 수는 라틴아메리카의 청년 인구의 20%에 해당한다. 이는 산업화된 국가의 니니족 비율인 11%의 두 배에 달한다.

1) 출처: <http://www.elmundo.es/internacional/2016/01/24/56a50ba8ca4741542e8b466d.html>

2) 니니족(los ni-nis): ‘직업이 없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다’는 뜻의 스페인어 ‘ni trabaja ni estudia’에서 부정의 뜻을 가진 등위 접속사 ‘ni’를 따서 만든 신조어.

▶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니니족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 두 국가에서는 청년 인구의 약 25%가 니니족인 반면, 페루의 경우 11%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가 가장 많다.

▶ 니니족 중 3분의 2가 여성이며, 대다수는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다. 하지만 젊은 남성 니니족의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폭력집단이나 조직범죄에 가담한다.



세계은행, 『라틴아메리카의 니니족』 (출처: <http://repositorio.minedu.gob.pe>)

우리가 이러한 통계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청년실업은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니니족의 증가는 경제를 위협한다. 젊은이가 좋은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사라지며, 라틴아메리카의 인구 구성이 지닌 이점 또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향후 20년간 라틴아메리카가 ‘인구 채권’의³⁾ 이익을 누릴 것이란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출생률이 낮은 유럽 국가와 달리 라틴아메리카에는 노령층을 부양할 젊은 노동 인구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니족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인구로 인한 이점을 누리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젊은이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원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가령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조건부 학자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학

3) 인구 채권(bono demográfico): 인구구조상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 또한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

업을 마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알려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미 학교를 그만둔 젊은이에게 좀 더 세심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프로그램의 경우, 젊은이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6개월 과정의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물론 세계은행의 제안도 타당하다. 하지만 필자는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 싶다.

우선 라틴아메리카는 아시아 국가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열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문화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대중매체의 캠페인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라틴아메리카의 학교 교육은 보다 더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순위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핀란드, 중국, 싱가포르의 경우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이를 통해 배운다. 교사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으며, 놀이를 통해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칠 능력이 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에서 교사는 전문가이기보다는 ‘교육 노동자’로 간주되며, 교육 방식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니니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은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니니족의 시위 - “어디서 돈을 벌죠?” (출처: <http://www.proceso.com.mx/>)

[윤종은 옮김]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 미국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윤종은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대학원 재학